

지역 소식통

고창군, 농촌서 살아보기  
고창읍 화산마을서 진행

고창군 고창읍 화산마을에서 6월8일까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2023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4기 4명이 참여한다. 화산농촌체험휴양마을의 대표인 이숙희씨가 운영을 맡았다. 지난 18일에는 환영회가 열렸고 참가자와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며 환대를 주고 받았다.

참가자들은 2개월간 화산마을에서 생활하며 농촌생활의 다양한 경험을 해볼 예정이다.

또 일자리 연계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화산농촌체험휴양마을 이숙희 대표는 "농촌에서의 삶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생활을 체험하며, 도시민들이 농촌에서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해양경찰, 고사포  
해수욕장 인근 익수자 발생

부안군 고사포 해수욕장 인근에서 20일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2명을 구조하고 추가 익수자 확인에 나섰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오전 9시 7분경에 신고 접수 즉시 경비함정, 구조대, 파출소 등 가용 구조세력을 총 동원해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인근 선박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 구조장에 의해 익수자 2명을 발견하여 119에 인계 조치하며, 현재 추가 익수자 수색을 위해 지역구조본부를 가동하여 수색 중에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전북 최초 수소청소차 운행

## 부안군, 수소전기자동차 암물 트럭 청소차 1대 도입

부안군은 전북지역 지자체 중 최초로 1대를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소전기자동차 암물 트럭 청소차이다.



부안군은 전북지역 지자체 중 최초로 수소전기자동차 암물 트럭 청소차 1대를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소청소차는 지난해 12월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수소청소차 실증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에서 실제 운행이 가능한 안전장비 등을 보강 후 이번에 본격 운행하게 됐다.

수소청소차는 수소에너지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일반적인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과 달리 온전히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며 이를 통해 CO2 및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은 올해 수소저상버스 4대와 수소청소차 2대를 추가로 도입해 오는 2024년 추진 예정인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수소 교통인프라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수소청소차 보급은 대기오염 완화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며 "더 나은 대기환경을 위해 친환경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최저 가격 보장

## 정읍시, 건고추 · 노지감자 · 생강 재배 농가... 내달 31까지 읍면동 접수

정읍시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90%까지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또, 출하 약정 농업인이 시장거래(산지 폐기)를 신청했을 경우 소득보전단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 내 소재지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해 정읍단품미인조합 공동사업법인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이다.

신청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 1천㎡(300평) 이상 1만㎡(3,000평) 이하다. 2023년도 지원 품목은 8개 품목(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대파, 가물무, 가을배추)이며 해당 품목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다.

현재 건고추와 노지감자, 생강 품목에 대해 신청받고 있으며, 희망 농업인은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도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농가들이 많이 참여해 농업 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고창군, 농업근로자 인건비 안정화 위한 상생 결의 다짐

전북 고창군에서 농촌현장의 과도한 인건비 상승을 막아보자는 결의대회 열렸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근로자 인건비 상승억제 및 안정화를 위한 상생 결의대회'가 열렸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장, 지역농협조합장, (사)전국일자리협회 고창군지부 대표, 농업인단체장, 이장단협의회장, 농업인

등 120여 명의 관계자 참석했다.

이날 지역 농업인은 웃돈을 주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직업소개소 역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인건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적정인건비로 인력을 공급하는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

고창군과 농협 등 유관기관에서는 적절한 농업근로자 인건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각 분야의 대표 7인의 결의문 낭독과 함께 농업근로자 인건비 안정화를 위한 결의 대표자 공동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과도한 인건비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장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농업인과 인력공급업체 모두 상생의 지혜를 통해 지역 농촌에 안정적으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이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장애인 권익증진 실현에 최선을"

## 고창군,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열려

고창군장애인복지협의회(회장 박현규)가 20일 오전 '제43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소극장 및 체육관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올해 43번째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행사는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주제로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현장 낭독, 유공자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박현규 고창군장애인복지협의회장은 "그동안 힘은 여건에서도 잘 인내해주

신 장애인과 가족분께 정말 감사하다"며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움츠렸던 마음을 펴고 일상에 활력을 주는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행사를 위해 애써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상호유대를 더욱 강화해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보건소, '흡연 NO, 금연 YES' 청소년 금연 교육

정읍시가 청소년들에게 흡연의 해로움을 알리고 청소년이 간접흡연 피해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섰다.

청소년 건강행태조사(2021년)에 따르면 호기함에 처음 흡연을 접하는 평균 연령은 13.5세, 매일 흡연을 시작하는 평균 연령은 14.2세로 청소년들이 호기심과 스트레스 해소,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흡연을 경험한다.

청소년은 니코틴에 쉽게 민감해져 성인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빨리 커져, 금연이 어려워지고 평생 흡연자 또는 고도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시 보건소는 금연 상담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의 심각성

을 깨닫고, 흡연의 폐해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흡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 중심인 청소년들의 흡연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호기심에 담배를 접한 학생들의 조기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금연 전문 강사가 흡연으로 인한 질병, 흡연과 간접흡연이 미치는 영향, 흡연을 거절하는 방법, 전자담배의 유해성 등을 중심으로 학년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는 이를 위해 지난달 정읍교육지청과 지역 내 초·중·고 학교에 공문을 발송, 학교별 희망 일정에 따라 교육 신청을 받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 부안군, 재난현장 수습활동 역량강화 컨설팅 개최

부안군은 20일 부안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화재발생 대응 및 수습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최근 건조한 기후의 영향으로 화재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초기대응과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사회재난 종사자의 수습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은 최근 재난 대응사례를 바탕으로 상황관리반 구성·운영 및 반별 주요 임무역할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수습복구 지원체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자들이 평소 어렵게 느꼈던 사회재난 기본 지식과 현장경험 사례 등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올해 건조한 기후에 따른 강릉 대형산불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각 보고·수습대응 단계에 맞는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여 불가피하게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